

전북 펜싱 꿈나무들, 전국대회서 '메달 획득'

우석클럽 이승민·주연하 선수 은메달, 익산 위즈클럽 고예울 선수 동메달

전북 펜싱 꿈나무들이 전국 대회에서 메달을 수확했다.

전북펜싱협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올림픽공인 펜싱경기장에서 열린 '제6회 대한펜싱협회장배 전국 남녀 클럽동호인 펜싱선수권대회'에서 도내 3명의 학생들이 값진 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밝혔다. 메달을 획득한 주인공은 익산 위즈클럽 고예울(여양초)과 우석클럽 이승민(인후초), 주연하(남원중) 선수이다.

이승민, 주연하 선수는 우수한 실력으로 예선전을 통과했지만 결승전에서 아쉽게 패배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특히 우수 선수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전북펜싱협회에서 진행한 펜싱 꿈나무 교실 출신인 고예울 선수는 펜싱을 배운 지 불과 5개월만에 전국 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전북체육회는 올해부터 전북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한 전북 체육 꿈나무 육성사업을 추진했는데 펜싱 꿈나무 교실도 이 사업의 일환이다.

체육 꿈나무 육성 사업은 기초종목과 비인기종목, 취약종목 분야를 우선 지원, 선수자원이 부족한 종목의 꿈나무 조기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전북 펜싱 꿈나무들이 '제6회 대한펜싱협회장배 전국 남녀 클럽동호인 펜싱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수확했다.

있다. 전북펜싱협회 관계자는 "펜싱 꿈나무 교실 수 있었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줬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고창군 조희정 주무관,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서 '우수상'

고창군 기획예산실 조희정 주무관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서 만 65세 이상 여권 유효기간 선택폭 확대 제안이 우수상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조 주무관은 만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여권 유효기간을 10년 또는 1년 단수여권으로만 선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65세 이상 성인의 경우 본인이 희망할 경우 유효기간 5년의 여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 국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을 열었다.

이후 전국에서 접수된 5243건의 혁신과제 가운데 최종 심사를 거쳐 우수상 6건과 장려상 20건이 최종 선정됐으며, 시상식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고창=김영식 기자

원광대 대학일자리센터, UCC 제작캠프 및 경진대회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대학일자리센터는 지난 28일 전주 종남관광호텔에서 UCC 제작캠프 및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30명이 참석한 이번 경진대회는 현직 PD로 구성된 전문 강사진과 함께 스토리보드 구성 및 영상 촬영부터 편집까지 단계별 사전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차별화된 작품을 제작하도록 했으며, 2분 내외로 슬기로운 취준생활, 나 표현하기 등 기획한 주제와 내용을 영상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지도했다.

특히 캠프 후에는 경진대회를 통해 기술 및 내용을 중심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총 7편을 선정해 아이패드와 플리모이드 카메라 등 상품이 전달되기도 했다.

대학일자리센터 최재규 센터장은 "이번 행사는 직접 나만의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면서 본인의 차별화된 포인트를 형성하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 청년들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속적으로 진로 및 취·창업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UCC캠프는 1,2학년 학생들이 많이 신청해 앞으로 원광대의 대표적 진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선정된 우수작품은 대학 홈페이지 및 일자리 사업 홍보영상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익산=우병희 기자

정읍시,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공동체 페스티벌 성황리 개최

정읍시(시장 유진섭)에서는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8회 공동체 페스티벌을 내장상동 공공플러스 센터에서 개최했다. 2일간 진행된 축제는 지역공동체와 시민들이 함께 어울려 축제를 만들었고,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정읍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민 화합의 장을 훈훈한 열기로 채웠다. 축제는 시민들의 행복과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길놀이로 시작으로 난타, 인형극, 시립극 악단의 공연, 밸리댄스 등의 공연이 펼쳐졌다.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전통놀이, 나무짜기, 다투 던지기 등의 즐길거리와 맛있는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여 주말 날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었다. 공동체 페스티벌은 정읍시민장안대회를 통해 발굴된 공동체들이 지역 농산물을 연구하여 만든 먹거리와, 자신이 갖고 싶은 역할을 선보이는 자리다. 이 축제는 2014년부터 시작하여 이제는 연3,000여명 이상이 방문하는 정읍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공동체 페스티벌은 공동체들이 직접 만드는 축제라 여타 축제와는 다른 깊은 뜻이 있고, 이제 시작하는 공동체들도 선배 공동체들을 보며 난관에 봉착하여도 힘내어 나아가 달라"고 당부하고, "내년에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명품 축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군산시, 미혼남녀 유쾌한 만남과 사랑 찾기 행사 개최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지난 26일 미혼남녀 44명을 대상으로 '군산 달달한 청춘 로맨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시간적 여유와 만남의 기회가 부족했던 군산시 미혼남녀들에게 새로운 인연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을 열어주고자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시 홈페이지와 SNS 홍보를 통한 공개모집으로 선정됐으며, 당초 40명 모집에 86명이 신청하는 등 처음으로 진행되는 행사에 군산시의 미혼남녀들이 많은 관심과 호응을 나타냈다. 처음 만나는 선남선녀의 어색함을 줄이기 위해 달달한 티타임, 팀별 미션게임, 매력발산 자기소개, 이미지메이킹 미니특강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설렘이 가득한 화기에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김봉근 기획예산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관내 미혼 남녀에게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솔한 인연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임실군 지사면, 자매결연지 세종시 아름동에서 우수 농산물 홍보

임실군 지사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최홍진)에서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세종시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일원에서 개최된 '제4회 아름별 가족 축제'에 자매결연기관으로 참가했다고 밝혔다.

지사면은 세종시 아름동으로부터 특색있는 체험공간을 제공받아 지사면에서 생산된 품질 좋고 우수한 농산물을 홍보했다.

특히 군의 대표식품이기도 한 치즈와 고추로 만든 생선빵(피자, 장류식품)을 판매로 농민들의 판로 확보에 기여했을뿐만 아니라 그동안 상생협력 및 우호를 다졌다. 이번 아름별 가족축제에 지사면을 초청한 유은규 아름동 주민자치회장은 "지사면과 아름동의 교류행사를 통하여 소통과 화합분위기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임실=전종영 기자

정읍경찰서, '오솔길 시민순찰대' 운영

정읍경찰서(서장 한도연)는 29일 정읍시 오솔길과 등산로 주변의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오솔길 시민 순찰대(회장 염영선)'를 결성, 운영한다.

'시민순찰대'는 정읍시 마라톤 연합회 동호인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매주 3회 평일 오전 3시간씩 경찰에서 자체 제작한 조끼를 착용하고 시민성을 높여 범죄심리를 억제함과 동시에 등산로를 걸으며 주변순찰을 실시하고 등산객 대상 홍보활동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에서는 그동안 어등산, 수락산, 사패산 등 잇따른 여성 등산객 살인사건 이후 '산책·등산로 여성안전 치안대책'을 마련하여 위급상황 시 정확한 위치를 알고 신고할 수 있는 위치번호판 설치 등 방법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동호회, 지역주민 등과의 협업을 범죄 신고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명준 생활안전과장은 "관내에는 단종철 내장산을 비롯해 등산객이 즐겨 찾는 등산로가 많은 만큼 지속적인 순찰 실시로 범죄 분위기 사전 차단은 물론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8년 11월 29일 동행(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960/912 전주시 영신구 기린대로 222-4층 (서노출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회장 김옥길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010-9945-4113	중앙지사 010-9288-6674	남원지사 652-3896	고창지사 563-699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942-2725
서신지사 272-9417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84
요지지사 010-8845-9355	팔백지사 253-6944	남원지사 652-0995	정읍지사 538-3787
	군산지사 010-6789-020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9157
	익산지사 659-93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

구독·광고문의 288-9700